

제6장

국제이주와 여성

— 세계화와 이주의 여성화

International Migration and Women — Globalization,  
Feminization of Migration

이지영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송출국



경제발전

유입국



경제효율



STAGE 1: 😊

송출국



경제 존속  
공동체 해체

유입국



통합의 어려움



STAGE 2: 😡

송출국



불평등의 구조화



이주 여성

유입국



통합의 어려움

STAGE 3: 😐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이주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이주에 있어서 이주의 여성화의 원인과 여성이주의 증대가 이주 유입국뿐 아니라 송출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살펴보고, 그 결과 여성이주가 갖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검토에 있어서는 여성의 이주가 자발적인 것인지 강요된 것인지 행위자와 구조적 차원에서 주목하고, 여성의 이주가 경제성장을 가져오는지 통합의 어려움을 증대시키는지 경제와 공동체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결론으로 국제이주가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는지 불평등을 구조화하는지 논의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causes, impacts, implications of feminiza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by estimating its findings with the migration literature. This paper attempts to give answer to the questions: first, do women migrate autonomously or forcedly? second, does the growth of women's migration generate economic growth to both the origin and destination states? third, could international migration empower women's rights or structure inequality.

**KEY WORDS** 국제이주 international migration, 세계화 globalization, 이주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migration

## I 21세기 메가트렌드 국제이주

21세기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흐름 가운데 하나가 국제이주이다. 기술의 진보에 따른 국제교통기관과 정보통신의 발달, 탈냉전에 의한 각국의 출국 규제 완화는 국제이주의 비용과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세계화에 따른 소득과 고용기회의 국가 간 격차는 사람의 대규모 이동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주자는 2000년 1억 5,000만 명에서 2010년 현재 2억 1,400만 명으로 급증하여, 세계 인구의 3.1%가 자신이 출생하고 성장한 국가가 아닌 타 국가로 이주하고 있는 것이다(IOM 2010, 115). 다양한 종교, 언어, 역사,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대량으로 국경을 넘어 이주·정주하는 현상은 세계 각국의 출입국 관리, 안전보장, 고용과 사회보장, 인권, 사회통합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국제이주에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변화가 바로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이다. 이주의 여성화는 이주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2010년 현재 전체 이주자의 49%가 여성이며 특히 동아시아와 남미에서는 여성이주가 남성이주를 초월하고 있다(IOM 2009, 11-12; 2010, 165). 이러한 이주의 여성화는 노동이주의 여성화, 역내 이주의 증가, 다문화가족과 초국적 가족의 증가,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글로벌 공동체의 재구성,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젠더 불평등의 발생과 고착화 등 다양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까지 국제이주는 남성의 노동이주 중심

으로 인식되어 여성은 이주과정에서 수동적 존재로 간과되었고 국제이주 관련 연구에서도 여성의 이주나 젠더문제는 경시되어왔다. 이러한 기존 연구 경향은 이주의 여성화와 그에 따른 변화를 잘 설명해내지 못하고, 각국의 이주 관련 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이주의 여성화는 기존 연구와 각국의 이주 관련 정책에 있어서 젠더의 통합이라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젠더 관점에서의 국제이주 연구는 여성이주가 확대되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왜 여성이 이주하는지, 여성이주의 유형은 어떠하며 여성이주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설명은 남성을 이주의 주체로 전제한 기존의 국제이주 논의에서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시키는 것에 그치거나, 여성이주를 수용하는 유입국의 변화와 정책적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이지영 2012, 257-258; Oishi 2005, 7-10).

이 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이주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이주에 있어서 이주의 여성화와 여성 이주의 증대가 이주 유입국뿐 아니라 송출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살펴보고, 그 결과 여성이주가 갖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II 국제이주에 관한 논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경제발전은 대량의 비숙련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고 그 필요를 충족시킨 것이 저개발국가로부터의 대규

모 노동이주였다. 지역별로는 북아프리카·중동에서 유럽으로, 남미·カリ브 해에서 미국으로의 이주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지역별 이주 송출국과 유입국의 유형은 지리적 접근성과 구 제국주의 하에서의 디아스포라의 유산에 근거한다.

이러한 국제이주를 설명하는 주류는 신고전주의였다. 신고전주의적 분석은 개발국가와 서구산업국 간의 임금과 고용기회에 있어서의 격차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의 합리적 결정이 국제이주의 주요 원인이라고 제시한다. 즉 개인은 더욱 높은 임금을 추구해, 노동력은 풍부하나 자본이 희소한 저개발국가에서 자본은 풍부하지만 노동력이 부족한 서구산업국으로 이주한다는 것이다(Todaro 1976).

저개발국가에서 서구산업국으로의 노동이주에 대해 이주단계 모델이 제시되었다. 유입국들은 보편적으로 네 단계의 이주 과정을 경험한다. 그 과정은 중공업, 건설, 광산을 중심으로 젊은 미혼 남성들이 이주하는 1단계에서, 나이든 기혼남성들이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이주에 합류하는 2단계, 남성노동자의 장기체류와 더불어 배우자와 자녀가 가족 재결합을 위해 이주하는 3단계, 그리고 이주자 가족이 증가하고 이주자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이주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는 4단계로 진행한다 는 것이다(Bohning 1984).

개인의 경제적 합리성과 선택을 기본명제로 하는 신고전주의와는 달리, 국제적인 노동분업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국제이주의 원인으로 보는 구조주의에서의 설명도 제시되었다. 구조주의는 세계시스템에서 중심국과 주변국의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

을 중시하는데, 주변국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이 이주의 송출 요인으로, 중심국가의 3D업종에서는 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주의 유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Dickins 외 1988, 129-134). 이러한 구조주의적 분석은 국제이주를 중심국의 주변국에 대한 착취의 한 형태로 파악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이주에 관한 논의들은 이주를 남성만의 현상으로 다루어왔다. 1960년대 서구산업국에서 이주자의 가족 재결합이 이민정책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이주연구는 여성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기 시작하였으나, 어디까지나 여성은 배우자인 남성이주자의 피부양자로서 배우자를 따라 이주하거나 떨어져 있던 배우자와 결합하기 위해 이주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였다 (Kofman 외 2000, 47).

### III 여성은 왜 이주하는가—이주를 원하는가, 이주할 수밖에 없는가

#### 1. 자발적 이주

이러한 연구 경향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 기혼여성의 가족 재결합이 목적이 아닌 단독 이주와 미혼여성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이주 과정에서 여성의 가시화되고 이주통계에서 성별 통계가 작성되면서부터이다.

그렇다면 여성은 왜 이주하는가. 이에 대한 설명은 1970년대

까지 국제이주연구의 주류였던 신고전주의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주 현상 자체가 성 중립적인 것으로, 남성이주에 준해서 여성의 이주를 다룰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이주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심화되고 좀 더 값싼 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선호가 강화되면서 남성 이주노동자보다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변화를 여성의 물질적 이익 추구의 기회로 여긴다는 설명이다(Truong 1996, 27-52).

그러나 여성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 이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과 함께, 경제적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성맹적(gender blind)인 신고전주의에서 벗어나 여성의 이주를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젠더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이다. 여성은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불평등한 젠더관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국제이주를 선택한다. 가부장적인 사회와 가족의 억압, 전통적으로 부여받고 기대되는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젠더역할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더욱 주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영위하기 위해 이주한다는 것이다(Morokvasic 1983). 아일랜드 여성들은 19세기 후반부터 고도로 가부장적인 본국을 떠나 일과 자유를 찾아 영국으로 이주해왔다. 1961년 영국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아일랜드 이주여성의 20.1%가 전문직종에, 11.8%가 의류업에 종사했다(Kofman 외 2000, 51-53).

젠더전략 외에 여성의 이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송출국의 정책과 송출국 사회 내의 정당성 문제를 다룬 연구도 있다. 송출국 정책이 여성이 이주할 경우 이주하지 않을 경우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국제이주를 장려할 때, 또한 송출국 사회 내에서 여성의 국제이주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될 때 여성들이 국제이주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필리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필리핀은 1974년 마르코스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국제이주를 장려해왔는데 1984년 필리핀해외고용국을 설치하고 국제이주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1986년 아키노 정부에서 여성이주자를 ‘영웅(heroesines)’으로 칭송하고 이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여성의 국제이주는 빠르게 증가하였다(Oishi 2005, 63-68). 반면 같은 아시아 국가이고 1971년부터 자국민의 국제이주를 장려해온 방글라데시의 경우는 연령을 제한하거나 남성이 동행할 경우에만 해외 취업을 허용하는 등 여성의 국제이주를 제한하였다. 또한 방글라데시 사회 내에서도 여성의 국제이주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숙 수준이 낮고 여성은 방글라데시 남성, 방글라데시 국가의 소유라는 젠더 불평등 인식이 강해 해외에서의 방글라데시 여성이주자에 대한 성폭력문제도 피해 여성의 인권보다는 방글라데시 남성, 방글라데시 국가의 권리 침해로 받아들인다. 그 결과 방글라데시 여성의 국제이주는 남성의 이주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았다(Oishi 2005, 74-79).

여성이 이주를 결정하는 또 다른 비경제적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주 유입국의 정책과 유입국 사회 내에 형성된 이주네트워크이다. 유입국의 정책이 여성이주자에 대해 친화적이고 인센

티브를 제공할 경우 여성은 이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또한 이주의 초기단계에 먼저 이주해온 여성이주자들이 유입국 사회에서 상호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교환하고 정서적 안정감과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형성한 이주네트워크가, 나중에 이주하는 여성이주자들의 국제이주의 사회자본으로 작용하여 유입국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것이다. 특정 유입국 내에 출신국 여성들의 이주네트워크가 발달된 경우 여성은 이주에 동반하는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어 이주 결정이 용이하다 (Boyd 1989, 638-670). 국제이주에서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가 이를 잘 설명해준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주자를 송출하고 있는 멕시코는 전체 이주자의 98%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2004년 현재 약 40만 명이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그 절반 이상이 여성이다. 멕시코 여성의 미국으로의 이주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1986년 미국의 이민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부터이다. 이민법 개정의 목적은 불법 이주자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여성 이주의 일부를 합법화시켰다. 또한 미국 내 멕시코 여성 이주네트워크는 일찍부터 발달해 멕시코 여성의 이주에 긍정적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경희 2010, 1-7).

## 2. 강요된 이주

한편 여성이 경제적 이익과 자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자발적으로 국제이주를 결정하고 그러한 여성 이주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달리 여성이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강요된 이주(forced migration)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강요된 이주가 여성이주만을 설명해온 것은 아니다. 강요된 이주는 주로 냉전 구조에서 안보와 정치적 난민과 연계해 분석되어왔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신생독립국들은 양극체제인 국제질서에 있어서 어느 진영에 편입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침예한 갈등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갈등은 내전으로 확대되어 대부분이 동서 냉전의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내전은 사회주의체제에 편입 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편입될 것인가의 국가체제의 문제 뿐 아니라 인종문제와도 복잡하게 얹히며 장기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종청소 등 폭력이 만연하고 대규모 인구 축출이 벌어지면서 신생독립국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은 붕괴되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난민이 대량으로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내전 이외에 강요된 이주의 원인으로는 대지진,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 환경파괴 등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와서 내전, 자연재해와 환경오염을 냉전이나 천재지변의 차원에서가 아닌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냉전 종식 후 탈사회주의의 진행과 함께 심화되고 있는 세계화에 주목하는 논의가 그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견해가 제시된 이유는 냉전이 종언되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있다고 일컬어짐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에서 내전과 난민 발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Castles 2003, 17-18).

강요된 이주를 세계화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입장은 특히 초국적 기업주의와 탈국가 금융자본주의로 촉발된 경제 재편과 그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서구의 경제발전에 따른 제조업 노동력 수

요는 1970년대에 종료되고, 서구사회가 탈산업화하면서 금융업과 회계사, 경영 컨설턴트 등 고도로 특화된 전문직이 집중된 글로벌 도시가 발달하면서 서비스노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또한 서구산업국의 제조업이 후기산업국의 수출지대와 경쟁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의 이익과 글로벌 자본의 이익이 접합되어 남성노동자의 완전 고용이 기피되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후기산업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글로벌 자본의 유치 경쟁에 나서고 단기간 내에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과도한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은 결국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중산층 몰락이 가속화되고 복지국가도 후퇴하여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었다. 이렇게 세계화는 한 국가 내의 경제 양극화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불평등을 고착시키면서 강요된 이주를 증대시키고 있다. 세계화에 의한 글로벌 재구조화, 글로벌한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저개발국의 여성들이 생계와 가족 부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동자로, 배우자로, 엔터테이너로 강요된 이주를 하게 된 결과가 바로 노동이주의 여성화, 국제이주의 여성화라는 것이다(파레냐스 2009, 32).

한편, 글로벌 자본은 아프리카와 남미의 석유 등 천연자원을 둘러싼 이권 싸움을 벌이고 여기에 국익이 개입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여 내전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글로벌 자본이 투자된 저개발국가의 댐, 플랜트, 리조트, 테마파크 건설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며 주민들의 생활 기반을 붕괴시키기도 한다. 표면적으로는 천재(天災)로 보이는 자연재해가 실제로는 과도하고 무분별한 개발이 낳은 결과라는 것이다(Castles

2003, 15-16). 내전과 무분별한 개발로 발생하는 경제적 난민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난민여성의 대다수가 불법 이주자로 전락하고 있다. 난민여성들은 국제적인 인신매매의 주요 대상이 되어 성산업과 제조업 등에서 현대판 노예와 같은 지위에 처해 있다(UNHCR 2002, 4).

이상으로 이주의 여성화가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인지 강요된 이주의 결과인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여성 이주를 세계화에 따른 기회의 확대와 선택의 자율 아래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발적인 이주로 볼 것인가, 양극화와 생존권 위협 앞에 이주할 수밖에 없는 강요된 이주로 볼 것인가, 그 인식의 차이에 따라 여성이주의 증대와 그것이 유발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국가마다 달라질 것이다. 다음으로 어떠한 여성의 어느 정도, 어디에서 어디로 이주하는지 여성이주의 유형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여성이주의 실체를 살펴보도록 한다.

## IV 여성이주의 유형

### 1. 노동이주

여성이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노동이주이다. 그러나 고학력에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숙련 노동자나 전문직 노동자로의 이주는 소수이고 대부분이 비숙련 노동자로 이주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노동이주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뚜

렷한 성별에 따른 직종 분리이다. 전문직은 보건,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비전문직의 경우는 주로 가사, 육아, 노인돌봄이 많아 여성이 주자들이 전통적인 성역할분업에서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 온 재 생산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IOM 2009, 26-27).

여성의 노동이주가 재생산노동에 집중되는 것은 금융업과 회계사, 경영 컨설턴트 등 고도로 특화된 전문직이 집중된 글로벌 도시가 발달하면서 서비스노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콩이다. 홍콩은 중국과 다른 국가 간 중계 무역의 거점으로 번영하였고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에는 다국적기업의 자본투자와 금융업이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 거주 서구인들이 증가하고 영어가 가능한 가사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서 홍콩은 1976년부터 노동부 내에 외국인 가사노동자 관련 기관을 설치하고 가사노동자의 단기 이주를 허용하였다. 1970년대 수천 명이던 이주 가사노동자는 2001년에는 23만 2,000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서구산업국이나 후기산업국의 경제발전으로 국내 여성의 경제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돌봄의 결핍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메우기 위해 각국이 돌봄노동자의 이주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여성의 노동이주가 재생산노동에 집중되는 이유이다. 남미, 아프리카, 동유럽의 구 공산권 국가의 이주 여성들이 북미, 서유럽 국가에서 가사노동자로 종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유럽 국가들이 노동이주를 제한하면서 남유럽 국가로 노동이주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남유럽 국가의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Kofman 외 2000, 60-61). 특히 아시아 후기산업국의 성장은

아시아 여성의 역내이주와 재생산노동의 이주를 견인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주도형 발전정책을 펴면서 국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1970년대 말부터 국내에서의 가사노동력 공급이 고갈되면서 1978년에 외국인 가사노동자제도를 도입했다. 2000년 싱가포르 내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14만 명에 달한다. 후기 산업국 가운데에서도 국제이주 수용에 엄격했던 대만은 1992년에 돌봄노동 이주를 허용했고 한국은 2002년에 조선족에 한해 가사노동자의 단기 이주를 허용했다. 이로써 현재 아시아의 모든 후기 산업국은 공식적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이주를 받아들이고 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대부분이 필리핀 여성이며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북미 등 130개가 넘는 국가에서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이주여성의 3분의 2가 가사노동자이다(Oishi 2005, 23-27).

그러나 돌봄의 결핍을 왜 이주여성이 메워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재생산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성역할분업의식 때문이다. 남성의 대다수는 자신의 유급 배우자보다 가사노동을 덜 하고 아내보다 소득이 낮은 남편의 가사 분담은 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은 남성의 경우 여성의 높은 소득은 가부장제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사노동을 회피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긴다. 경제발전으로 산업국에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집안 내에서 가사, 육아, 노인돌봄을 담당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높은 맞벌이 소득이 양성 간

에 평등한 가사노동의 분담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 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하는 여성 중 압도적 다수가 돌봄노동자를 찾게 되고 노동시장으로 저개발국가의 이주여성이 편입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생산노동에 편입되는 이주여성은 기혼자가 많다(Hoschild 1989; 파레냐스 2009, 118-119).

미혼여성은 재생산노동이 아닌 주로 서비스업이나 저임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서유럽에서는 1980년대 중공업과 광산업이 쇠퇴하면서 서비스업에서의 이주여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많은 이주여성들이 호텔 및 유통업 분야의 비숙련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최근 노동이주의 여성화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최근 20년 동안 세계화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가 증대되면서 국제이주 이전에 농촌에서 도시로의 국내이주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이주에 있어서도 이주의 여성화는 현저하다. 1995년에서 2000년까지 여성이주의 증가는 남성이주 증가의 2배를 기록하였고 2006년 현재 1억 2,000만 명의 이주여성이 의류, 인형, 섬유, 전자제품 등의 수출업체에서 일하고 있다(IOM 2009, 264). 2000년대에 접어들어 여성의 국제이주가 증가하였고 2005년부터는 그 증가폭이 확대되었는데 중국 여성이 가장 많이 이주하고 있는 목적지는 일본이다.

일본은 다른 산업국들과는 달리 가사노동자의 이주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1940년대 후반 이미 인구가 1억을 넘어선 일본은 국내 노동력만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일본은 급증하는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를 농촌에서의 노동이주와 주부의 시간제

노동으로 충당하며 국제이주를 받아들이지 않는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노동력 부족으로 제조업체의 도산이 계속되면서 연수제도, 기능실습생제도를 신설하여 연수생, 기능실습생 자격으로 아시아로부터 단기의 비공식적 노동이주를 수용하게 되었다. 2008년도 조사에 따르면 2006년에 연수생의 55%, 기능실습생의 56%가 여성이고, 연수생의 66.7%, 기능실습생의 80.5%를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연수생, 기능실습생의 대부분이 종업원 100인 이하의 제조업체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영 2012, 277-281; 衆議院調查局法務調查室 2008, 42-45).

미혼여성의 노동이주 유형의 하나이면서 특정국에서 특정국으로의 이주가 돌출된 특징을 보이는 것이 엔터테이너(entertainer) 자격으로의 이주이다. 서유럽 국가에서는 몇 차례 엔터테이너 이주의 물결이 있었다. 필리핀, 태국의 아시아 여성에서 도미니카, 콜롬비아의 남미 여성으로, 그 다음 가나, 나이지리아의 아프리카 여성에서 1992년 이후는 주로 동유럽 여성들이 엔터테이너로 이주하여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다(Kofman 외 2000, 64). 엔터테이너 여성의 이주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고 가장 많이 송출하고 있는 나라는 필리핀이다. 일본은 여성의 전문직 숙련 노동을 제외하고 이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전문 분야의 재류(在留)자격으로 분류되면서도 취득이 용이한 것이 엔터테이너 자격이다. 엔터테이너 자격은 1970년대 일본 남성의 아시아 섹스관광이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자 1981년 출입국관리령 개정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일본인 남성의 관광이 줄면서 현지 성산업이 쇠퇴하자 기존의 성산업 종사자와 농촌의 젊은 여성

들이 이 자격으로 일본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2년 필리핀에서 엔터테이너자격을 취득한 73,685명 가운데 73,246명이 일본으로 향했다. 일본으로의 엔터테이너 이주가 증가하기 시작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로, 2004년에는 약 9만 명(불법체류자 1만 명 포함)의 필리핀 여성이 엔터테이너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영 2012, 275-276; 佐竹 외 2006, 14-17).

## 2. 결혼이주

여성이주의 특징 중 하나는 결혼이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결혼이주는 결혼중개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신부를 알선받는 매매혼의 형태를 띤다. 유럽에서 결혼이주의 주요 목적국은 독일이다. 독일에서는 우편으로 남미, 아시아, 동유럽, 옛 소련 여성들을 신부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독일 여성보다 자기주장이 덜 강하고 순종적이라는 이유에서이다 (Kofman 외 2000, 69-70).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으로의 결혼이주가 가장 많고, 결혼이주자에 의한 이주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건수는 2000년 6,945건에서 2010년 26,274건으로 증가하였고 외국인 여성의 70% 이상이 중국과 베트남이며 필리핀이 세 번째로 많다. 최근에는 중국 여성과의 혼인이 감소하고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인이 크게 늘고 있다(통계청 2010). 일본의 경우는 일본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 건수는 1995년 20,787건에서 2006년에는 35,993

건까지 증가했다. 외국인 여성 배우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2006년 필리핀 12,150명, 중국 12,131명, 한국·북한 6,041명, 태국 1,676명의 순이다(厚生勞働省 2010). 한국 남성, 일본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 여성의 대부분이 아시아 여성임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발전기에 젊은 여성의 농촌에서 도시로 많이 이주하면서 농촌에 인구 과소화와 만성적인 신부 부족이 발생했는데,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일본은 지자체 차원에서 민간의 국제결혼업자를 매개하여 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의 대상이 된 것은 주로 빈곤한 농촌 지역의 젊은 여성으로 이들은 농사뿐 아니라 가사, 육아, 노인돌봄을 떠맡고 있어 내국 여성의 이농으로 발생한 돌봄의 결핍을 메우고 있다. 이 밖에 재류(在留)자격에 있어서 배우자 자격이 취로에 제한이 없고 취득이 용이한 것도 결혼이주의 증가 원인이다. 아시아 여성의 한국과 일본으로의 결혼이주는 노동이주의 대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서의 이러한 아시아 여성의 결혼이주 증가는 노동비용과 사회복지비용의 상쇄 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다(IOM 2009, 170).

### 3. 난민이주

냉전 시기인 1970년대 쿠데타 이후 칠레 난민, 베트남의 보트파플, 스페인, 포루투갈, 그리스의 반체제운동가들의 망명 등 난민의 물결이 있었으며 유럽 국가들은 이를 수용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 난민은 보통 남성으로 인식되고 여성의 경험은 무시되었

기 때문에 여성의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려웠다. 난민의 다수가 여성과 아동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은 UN의 ‘세계여성의 10년 (1975~1985)’ 중 1980년 코펜하겐 세계여성회의에서였다. 1984년 유럽의회에서는 각국이 난민 인정 시 성 박해의 특수성을 인지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냉전 붕괴 후 내전이 빈발하고 장기화되면서 1990년대 유고 내전을 계기로 많은 국가들이 난민의 유입을 막고 난민 신청자에 대한 권리와 복지 수혜를 축소하면서 난민여성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Kofman 외 2000, 71-75).

난민 수는 1975년 240만 명, 1990년 1,409만 명, 2000년 1,509만 명, 2010년 현재 1,504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난민이 국제이주자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전체 난민의 48%가 여성이다. 지역별로는 중앙아시아가 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타 지역의 난민이 감소 추세인 것과는 달리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대 난민 유입국은 파키스탄으로 160만명, 다음이 이란 86만 8,200명, 독일 58만 9,700명, 케냐가 56만 5,000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난민의 25%가 저개발국가에 수용되어 있다. 난민의 출신국을 보면 아프가니스탄이 28만 명으로 가장 많고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수단이 뒤를 잇고 있고, 이들이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한다(UNHCR 2010).

지금까지 여성이주의 유형으로 노동이주, 결혼이주, 난민이주를 살펴봄으로써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 간 아시아 역내에서 여성이주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은 가사노동, 육아, 노인돌봄 등 재생산노동자로,

미혼여성은 수출업체의 생산노동자나 성산업 종사자로 이주하고 있고, 결혼이주의 경우는 매매혼이나 노동이주의 대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의 이주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송출국과 유입국별로 검토하도록 한다.

## V 송출국에의 영향—경제성장인가, 경제종속과 공동체 해체인가

### 1. 경제성장

여성의 국제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여성이주를 장려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현저하게 나타나는 이주의 여성화와 아시아 여성의 이주 증가는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와 실업률의 증가,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성노동력을 인적 자원으로 삼아 전략적으로 국제이주를 지원하며 이들의 해외 소득의 국내 환원을 통해 경제회복을 꾀한 것이다. 2007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주자의 해외송금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로 270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 257억 달러, 멕시코 250억 달러, 필리핀 16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은 인구 10억이 넘는 대국이고, 멕시코는 2005년 현재 1,150만 명이 국제이주를 하는 세계 최대 이주 송출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필리핀의 해외송금액이 특출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와 중국의 경우 해외송금액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인도가 약 2%대, 중국은 그보다 훨씬 작아 1%대에도 못 미치는 것에 비해 필리핀의 경우는 13%대에 이른다. 아시아 역내의 여성이주가 활발한 다른 아시아 국가의 해외송금액을 보면 베트남 50억 달러, 태국 17억 달러, 말레이시아 17억 달러이다(World Bank 2008, 17).

해외송금의 경제적 효과를 필리핀을 사례로 살펴보면 우선 해외송금은 아주 송출국의 외자 획득의 주요 수단으로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 필리핀은 2003년부터 경상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해외송금의 급증이 큰 역할을 했다. 필리핀의 해외송금이 2001년부터 평균 15.5%, 2005년에는 25%나 증가한 것이다. 해외송금의 경제효과는 경상수지 개선만이 아니다. 해외송금은 국내소비를 자극하며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저개발국가의 대부분은 취약한 경제시스템 아래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충격에 의해 소득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의 경기 동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해외송금은 소득의 변동을 흡수하고 소비의 평준화에 기여한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소득이 크게 감소했을 때에도 필리핀의 국내소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거액의 해외송금 덕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제이주는 실업률을 감소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필리핀의 경우 높은 실업률은 노동력 수요 부족에 의한 것으로 국제이주의 증가로 국내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여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을 일정 정도 해소한다는 설명이다(Burgess 외 2005). 실제로 노동이주가 없었다면 필리핀의 실업률은 40%로 치솟았을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파레나

스 2009: 93).

국제이주와 해외송금의 경제적 효과는 거시경제뿐 아니라 세대 수준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선 가족으로의 해외송금은 세대빈곤을 감소시킨다.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심화로 남성의 고용이 기피되면서 세대주 또는 부양자가 된 이주여성의 해외송금은 세대소득을 증대시킨다. 필리핀 여성의 이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빈곤으로부터의 탈피이다. 필리핀의 세대빈곤률은 2006년 21.1%인데 빈곤세대의 75%가 농촌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의 세대빈곤률은 37.84%로 도시부의 14.32%를 크게 상회한다 (ADB 2009, 13-22). 필리핀 이주여성의 대다수는 농촌 출신이다. 2007년 현재 필리핀 국민이 받는 해외송금은 월 13.6달러로 국민 1인당 GNP의 약 10%에 해당한다 (World Bank 2008). 2009년 세대빈곤률은 20.9%로 감소하였다. 또한 가족으로의 해외송금은 자녀 교육에 투자됨으로써 인적자본 축적에도 기여하고 창업자금으로 소요되면서 세대 소득 또한 증대시킨다. 기혼여성이 국제이주를 결정하는 주요 동기 가운데 하나는 자녀의 교육비용 마련이다. 또한 바나나 농장 구입 등을 통한 안정적인 세대소득의 창출이다.

필리핀이 해외고용관리국을 설치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이주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주여성을 ‘국가의 영웅’으로 상징화하고 우대하는 것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 때문이다.

## 2. 경제적 종속과 공동체의 해체

그러나 여성이주의 증대와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해 전혀 다

른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국제이주와 해외송금이 송출국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송출국 경제를 글로벌 자본주의에 의해 재구조화된 불평등한 경제관계에 종속시키고 해외송금에 의존하게 한다는 것이다. 해외송금이 생산적 설비 투자, 연구개발 투자, 인적자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한 소득 이전에 그치기 때문이다. 즉 성장 동력을 구축하지 못한 채 경제정책의 실패나 GDP 감소, 경상수지 적자를 용이하게 집금되는 해외송금으로 보전한다는 것이다. 해외송금의 보전에 의한 경제지표의 개선으로는 경제성장이 달성될 수 없다(Chami 외 2005, 55-81). 또한 거액의 해외송금이라는 외화 획득 수단은 국내 경제개혁을 늦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 없이 글로벌 경제로 전면 편입되는 필리핀을 이주에 의존하게 한다. 그러나 유입국 내에서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자신의 학력이나 직업적 전문 지식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 외국인에다 여성이라는 이중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차별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늘 수요가 존재하는 가사노동이나 비숙련 노동으로 하향 취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하향 취업은 여성이 주자들의 전문 기능과 지식을 잃게 만들고 송출국 국내의 인재 유출로 이어진다. 해외송금에의 의존과 경제종속의 결과 송출국은 값싼 서비스노동력 공급자로 전락하고 국민들은 세대에 걸쳐 이주하게 된다(파레냐스 2009, 92-93).

해외송금에 대한 의존은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세대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해외송금이 가족의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여성은 가족에 대해 자신의 송금이 합리적으로 소비되고 잉여분의 저축과 그를 기반으로 창업 등에 투자되

어 안정적인 세대수입을 창출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주여성은 가족에게 일단 송금된 이전소득에 대해 그 사용과 용도에 제약을 가할 수 없다. 따라서 송금받은 가족은 이전소득을 저축하지 않은 채 다음 송금을 기대하며 소비해버리는 행동을 하기 쉽다. 이러한 이주여성과 남겨진 가족의 의식의 차이가 가족의 해외송금에 대한 끝없는 의존을 낳는다(Wako 2003, 41-45). 결국 해외송금은 세대소비는 증가시켜도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량의 여성의 국제이주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공동체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가족과 지역공동체 해체의 위험이다. 18세기 후반 도래한 산업화시대는 근대가족의 탄생을 가져왔다. 근대가족은 생산노동에 종사하며 소득을 벌어들이는 부양자 아버지와 재생산노동을 담당하는 어머니 사이의 노동분업을 유지하며 정서적 친밀감, 즉 사랑에 의해 유대와 결속이 이어지는 가족이다. 그러나 탈산업화와 초국적 자본시장의 발달은 제조업의 쇠퇴를 초래했고 제조업의 쇠퇴는 부양자 아버지의 실업과 가족임금의 붕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여성의 임금소득에 크게 의존하게 되고 근대가족의 전제들은 무너지게 되었다. 소득을 위한 어머니의 국제이주는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정서적 친밀감과 결속을 약화시키고 별거의 고통에 따른 가족해체로 이어진다(파레느냐스 2009, 171-175).

그러나 가족별거의 고통을 인내하고 소득을 벌어 돌아온 어머니는 가족에, 지역공동체에 재통합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적인 근대가족의 규범이 강할수록 재통합의 어려움이 증대되

는데 국제이주로 인한 지리적 별거가 여성의 어머니로서, 딸로서의 책임과 역할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돈을 벌어 송금하는 가족의 부양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지게 되었지만 육아와 돌봄의 전통적 역할도 여전히 지고 있다. 여기에는 가부장적 국가의 의도도 작용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이주와 해외송금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는 이주여성으로부터 얼마나 확실하게 송금 받는가가 주요 정책과제가 된다. 필리핀의 경우는 이주여성이 송출국에, 가족에 귀속되어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려는 담론을 구축하고 있다. 그 하나가 ‘국가의 영웅’이며 다른 하나가 ‘결손 가정’이다. 이주여성은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영웅인 동시에 국제이주로 어머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 결손 가정을 만들어냈다고 비판받는 자이다(Ogaya 2004, 180-182). 한편 농촌에서는 미혼여성의 대량 이주로 가족 형성 자체에 곤란함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성이주의 증대가 송출국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공동체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유입국에는 여성이주의 증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 VI 유입국에의 영향—경제적 효율인가, 통합의 어려움인가

### 1. 경제적 효율

여성의 국제이주가 이주를 받아들이는 유입국에 미치는 영향은 경

제적 효율성의 증대라고 할 것이다. 우선 노동시장에서 이주여성을 비숙련 이주남성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이것은 자본의 이익과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단순 취로와 거주를 위한 이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에 의해 연수생, 기능실습생제도를 도입했다. 연수생의 평균 임금은 1997년 9만 4,566엔에서 2006년 6만 5,612엔으로 감소하였고, 기능실습생의 평균 임금도 2000년 13만 엔에서 12만 3,000엔으로 감소했는데, 여성 기능실습생의 경우 남성보다 적은 11만 8,000엔대에 머무르고 있다(衆議院調査局法務調査室 2008, 51, 62). 만일 중국인 여성 연수생, 기능실습생이 없다면 일본의 영세 제조업은 도산의 위기에 처할 것이다.

둘째는 값싼 재생산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노동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이주여성들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노인양로병원의 돌봄노동자의 대부분이 조선족 이주여성으로 이들이 모두 중국으로 돌아가거나 더 이상 이주해오지 않는다면 심각한 노인돌봄의 결핍이 발생할 것이다. 산업국과 글로벌 도시의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모두 본국으로 귀환한다면 미국과 서유럽,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여성들은 남성들이 성역할분업의식에 변화를 일으켜 적극적으로 가사, 육아를 분담하거나 국가가 복지정책을 통해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고 높은 맞벌이 소득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농촌에서는 미혼여성의 이농이 감소하고 귀농이 증가하지 않는 한 결혼이주자 없이 가족과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재생산노동을 공

급받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 2. 통합의 어려움

유입국으로의 여성이주의 증대가 이러한 경제적 효율을 증가시키는 반면, 통합의 어려움 또한 커지고 있다. 많은 유입국에서 사회의 유동성과 다양성의 증대로 통합과 정체성 유지가 쉽지 않다. 특히 한국 지역사회의 경우 다양한 국적, 언어, 종교, 문화적 배경을 지닌 여성의 결혼이주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가족 내 소통의 문제, 다문화자녀의 교육 문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로의 통합 문제에 직면해 있다.

통합은 국민국가가 국가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구성원을 국민으로 묶어내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통합을 사회 구성원들이 체제의 지배정당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체제통합'과 생활세계에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적 자율성과 의존관계를 구성해내는 '사회통합'으로 구분한다. 실질적인 통합은 거시적인 체제통합에서 좀 더 미시적인 사회통합에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통합의 기제가 문화이다(하버마스 2006, 196-307). 이러한 하버마스의 통합 개념에 따르면 이주 유입국들의 통합정책은 이주자를 유입국 사회에 동화, 편입시키기 위한 획일적인 체제통합 중심에서 이주의 급증에 따른 이주자의 다국적화, 사회의 다문화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자의 다양성과 문화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통합 중심으로 변화해왔다(이선주 2009, 28-36). 여성이주자는 체제

통합에서는 정책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다가 사회통합에 있어서는 주요한 통합의 매개자로 인식되면서 여성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정책이 추진되고 있다(이지영 2012, 265).

그러나 여성이주자들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이들에게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지 쉬운 문제는 아니다. 내국인과 동등하고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하기에는 사회통합의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입국 내에서 자본의 이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 이주노동자가 선호되고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항상적 수요가 형성되면서 여성 이주노동자의 고용이 유입국의 비숙련 남성노동자의 고용과 경쟁관계를 이루면서 반이민, 반외국인 정서와 함께 성차별 의식이 강화되고 국수적인 내셔널리즘이 확산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부분의 유입국들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응을 보이고 있다. 즉 여성의 노동이주가 제공하는 비숙련 노동과 재생산노동의 효율은 극대화시키면서 이들의 정주나 영주, 시민권은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Piper 2008).

그러나 이주자들의 사회통합과 유입국 사회의 정체성 유지가 어렵다고 출입국관리를 강화하거나 국경통제를 엄격히 한다 해도 21세기 메가트렌드라고 일컬어지는 국제이주와 여성이주의 증대는 유입국의 의도대로 조절되지 않는다. 통계상 국제이주는 둔화와 감소세를 나타내더라도 통계상 계상되지 않는 미등록 여성이주자의 급증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미등록 여성이주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더욱 취약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이들을 둘러싼 이주산업과 지하경제도 발달하고 있어 이들의 사회통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ILO駐日事務所 2005, 15-45).

이상으로 국제이주에 있어서 여성이주의 증가 원인을 행위자와 구조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여성이주가 송출국과 유입국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와 공동체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주의 여성화가 국제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 VII 여성이주의 국제적 함의—삶의 향상인가, 불평등의 구조화인가

이주의 여성화가 확대된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려는 전 세계 여성들의 자발적인 행위의 결과이고 이들이 이주의 수혜자라면, 여성들의 삶은 총체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전통적 가부장제 사회의 억압과 역할기대에서 일탈하려는 젠더전략 차원에서의 여성이주는, 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키고 임금소득으로 이들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다. 부양자로서, 임금소득자로서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돌아온 이주여성은 ‘성공적인 여성’, ‘공동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은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정체성을 획득하고, 고용주가 되거나 공동체의 전통적 젠더역할을 변화시키는 세력화된 여성으로서 공동체를 주도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유입국 사회 내에서는 이주 가사노동자이지만 유입국 사회의 민주주의, 시민적 권리, 젠더평등의 가치와 제도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주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이주여성의 조직화와 세력화

를 도모함으로써 주체적인 운동가로 변화하기도 한다(UN 2005). 또한 여성의 국제이주가 송출국과 유입국 양쪽에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면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노력해온 빈곤 문제도 감소하고 국제사회의 인간안전보장도 강화될 것이다. 여성이 주의 증대가 국제사회의 빈곤 감소와 인간안전보장의 강화로 이어진다면 다양한 국적과 인종,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 의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국제이주의 현실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주여성의 경제적 이익의 확대와 권한 강화, 위계적 젠더질서의 변화를 통해 여성의 삶이 향상되기보다는 전 지구적 규모로 성역할분업이 확산되고 젠더 불평등이 고착되고 있다. 세계화와 글로벌 자본주의에 의한 경제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촉발되는 재생산 노동의 수요와 여성 이주노동자에 의한 재생산노동의 공급은 자본을 매개로 여성 간에 돌봄노동을 국제적으로 전이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서구 산업국가나 동아시아의 후기산업국에서 경제발전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신자유주의 하에 복지국가가 후퇴하면서 발생하는 돌봄의 결핍을 저개발국가의 여성이 가사, 육아, 노인수발을 담당하는 돌봄노동자로 이주함으로써 메우고 저개발국가의 여성이주로 발생하는 돌봄의 결핍을 이주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여성이 다시 메우고 있다(Hoschild 2000, 130-146). 1975년 ‘젠더 평등은 유엔의 기치 아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유엔이 국제사회에 젠더 평등을 이슈화하고 그 실현을 위해 여성차별철폐 협약을 제정하면서 중시해온 것이 ‘남성은 일, 여성은 가사, 육아, 노인돌봄’이라는 성역할 분업과 그 의식의 해소이다(UN 1996). 그

러나 이주 가사노동자의 증가는 성역할분업을 글로벌 차원에서 강화시키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국제이주를 통한 권한 강화가 성역할 분업과 그 의식의 해소에 뒷받침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또 다른 여성에게 돌봄노동을 전이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이라면 국제적 차원에서는 젠더 불평등은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젠더 불평등의 확산은 인종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돌봄노동의 전이가 국가 간 전이만이 아니라 인종 간 전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파레냐스 2009, 120-121). 결혼이주여성, 여성 이주노동자가 폭력과 노동 착취에 쉽게 노출되는 것은 인종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글로벌 자본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어 경제난민이 된 여성의 삶은 더욱 고단하다. 냉전시대 정치적 난민에게 포용적이었던 국제사회는 경제 난민의 증가와 9·11 태러 이후 난민 내에 테러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난민수용에 소극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경을 넘는 여성난민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어 강제 성매매와 노동 착취 상태에 놓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매년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인신매매되고, 그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무기밀매, 마약밀매의 뒤를 잇는 규모의 지하경제를 갖고 있다(ILO駐日事務所 2005). 국제사회도 2001년 인신매매금지의정서를 채택하고 인신매매에 대응하고 있으나 국제적 범죄 조직의 단속이 주요 목적으로 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는 미흡하다.

여성의 국제이주가 유발하는 경제적 이익과 가치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물질적 가치가 가족별거나 해체, 유입국 노동시장에

서의 하향 이동, 유입국 사회에서의 불완전한 통합과 차별, 성폭력의 위험 등이 모든 고통을 상쇄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니다. 또한 물질적 가치가 인권 침해, 불평등의 구조화, 경제 양극화에 따른 평화의 후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획득해야만 하는 유일한 가치도 아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항상적 평화의 구축이다. 반세기에 걸친 냉전과 탈냉전 이후 다시 사반세기가 훌렀어도 여전히 평화 구축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다. 평화 구축을 향한 국제사회의 첫 걸음이 UN의 창설이었고 UN헌장은 평화구축을 위한 가치와 이념의 하나로 평등을 천명했다. 젠더 간, 인종 간, 계층 간 평등은 국제 평화의 전제인 것이다. 여성의 국제이주문제는 이제 경제적 논리에서가 아니라 여성의 삶의 향상과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기본에서 다시 접근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 참고문헌

- 강경희. 2010. “멕시코 여성의 이주.” 여성정치연구회. 서울. 12월.
- 이선주. 2009.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III: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다각적 협력체계 증진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지영. 2012. “일본의 이주자정책이 여성이주에 미치는 영향: 출입국관리정책, 이주노동자정책,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2집 2호, 257-287.
- 통계청. 2010. “2010 혼인·이혼통계.” <http://kostat.go.kr>(검색일: 2013. 6. 1).
- 하버마스, 쥐르겐. 장춘의 역. 2006. 『의사소통이론 2』. 서울: 나남출판.
- 파레나스, 라셀 살라자르. 문현아 역. 2009.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도서출판 여이연.
- ADB. 2009. *Poverty in the Philippines: causes,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 Bohning, Wolf R. 1984. *Stud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London: Macmillan.
- Boyd, Monica. 1989. “Family and personal networks in International migration: recent developments and new agenda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23, No. 3, 638-670.
- Burgess, R. and Vikram H. 2005. “Migration and Foreign Remittance in the Philippines.” IMF Working Paper WP/05/111.
- Castles, Stephen. 2003. “Towards a Sociology of Forced Migration and Social Transformation.” *Sociology* Vol. 37, No. 1, 13-34.
- Chami, Ralph., Connel Fullenkamp and Samir Jahjah. 2005. “Are Immigrants Remittance Flows a Source of Capital for Development?” *IMF Staff Papers* Vol. 52, No. 1, 55-81.
- Dickins, W. T. and Kevin, L. 1988. “The Reemergence of Segmental Labor Market Theor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8, No. 2, 129-134.
- Hoschild, Arlie R. 1989. *Second Shift*. New York: Avon Books.
- \_\_\_\_\_. 2000. “Global Care Chain and Emotional Surplus Value.” Will Hutton and Anthony Giddens, eds. *On the Edge: Living with Global Capitalism*. London: Jonathan Cape.
- IOM. 2009. *Gender and Labor Migration in Asia*.
- \_\_\_\_\_. 2010. *World Wide Migration Report 2010*.
- Kofman, Eleonore., Annie Phizacklea., Parvati Raghuram and Rosemary Sales. 2000. *Gender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 Europ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orokvasic, Mirjana. 1983. “Women in Migration.” in Phizacklea Annie, eds. *One Way Ticket Migration and Female Labour*.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 Ogaya, Chiho. 2004. "Social discourses on Filipino women migrants." *Feminist Review* No. 77, 180 – 182.
- Oishi, Nana. 2005. *Women in Mo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Piper, Nicola, eds. 2008. *New Perspectives on Gender and Migration*. New York and Oxon: Routledge.
- Piper, Nicola. and Mina Roces. 2003.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Todaro, Michael. 1976. *Internal Mig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 Review of Theory, Evidence, Methodology and Research Priorities*. Geneva: ILO.
- Truong, T. D. 1996. "Gender, International migration and social reproduction: implications for theory, policy, research and networking."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s* Vol. 5, No. 1, 27-52.
- UN. 1996.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1945-1995*.
- \_\_\_\_\_. 2005. *2004 World Survey on The Role of Women in Development: Women and International Migration*.
- UNHCR. 2002. *Refugees Magazine* (April 2).
- \_\_\_\_\_. <http://www.unhcr.org/statistics>(검색일: 2013. 5. 30).
- Wako, Asato. 2003. "Organizing for Empowerment: Experiences of Filipino Domestic Workers in Hong Kong." in Tsuda Mamoru, eds. *Filipino diaspora: demography, social networks, empowerment and culture*. Quezon City: Philippine Migration Research Network and Philippine Social Science Council.
- World Bank. 2008. *Migration and Remittances Factbook 2008*.
- 佐竹眞明, メアリー・アン・ジェリンダ・アノイ. 2006. 『フィリピンー日本国際婚』 東京: めこん。
- 衆議院調査局法務調査室. 2008. 『外國人研修・技能実習制度の現状と課題』。
- 厚生労働省. 2010. "夫妻の国籍別にみた婚姻件数の年次推移." <http://www.mhlw.go.jp>(검색일: 2013. 6. 1).
- ILO駐日事務所. 2005. 『日本における性的搾取を目的とした人身取引』。

## 필자 소개

이지영 Lee, Ji Young

고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Kookmin University,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전임  
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랍어과 문학 학사, 일본 츠쿠비대학 사회과학연구과 정치학 박사

논저 “일본의 이주자정책이 여성이주에 미치는 영향”, “일본에서의 아시아 이주여성  
에 대한 사회담론과 정책적 대응-인신매매를 중심으로”, 전후 일본 민주화 운동의 리더  
십—이치카와후사에(市川房枝): 이념, 정치적 기회구조, 동원 전략으로서의 네트워킹  
을 중심으로”

이메일 saboten@hanmail.net